

결과 보고서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 국내 활동

대한민국, 양천구,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0월 31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무원 56명이 UNISDR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10 가지 필수요소 및 재난위험도 관리와 센다이강령 이행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센다이강령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회원국가들이 전세계적으로 재난 위험을 줄이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2015년 3월에 발표된 강령이다.

이 워크숍은 양천구 공무원에게 UNISDR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현재 대한민국 156 개의 지자체가 참가)을 알리고 재난위험 경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안전처, 인천광역시, UNISDR ONEA-GETI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 진행 내용

참가자들은 재난위험, 재난 취약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뒤 센다이강령에 대한 내용과 센다이강령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다. UNISDR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이에 따른 10 가지 필수요소에 대해서도 더 상세히 알게 되었다. 사례 발표를 통해서 모든 참가자는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한 설명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약자로 MCR)” 캠페인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조언, 안내, 도구와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센다이강령을 지자체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과

양천구는 재난 위험 경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양천구 주민들 중 노약자 계층을 위해 “복지가 강한” 양천구와 “안전한” 양천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재난위험 경감, 센다이강령,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10 가지 필수요소,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